

##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 (K-DJGLS) 타당화 연구: 노인을 대상으로

주 경 미

윤 정 혜<sup>†</sup>

차의과학대학교 의학과 / 박사수료

차의과학대학교 / 교수

본 연구는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JGLS)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편의표본추출법을 통해 수집된 65세 이상 386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50%를 무선 할당하여 구분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K-DJGLS)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 2요인으로 분류되었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절한 모형적합도로 나타났다.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해 연관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K-DJGLS는 UCLA 외로움 척도 및 단축형 노인 우울척도와는 높은 정적상관을, 자아존중감 척도 및 사회적지지 척도와는 부적상관 관계를 보였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9로 우수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K-DJGLS)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본 척도를 활용한 후속연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외로움,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 K-DJGLS, 노인, 타당화

<sup>†</sup> 교신저자 : 윤정혜, 차의과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Tel: 031-850-9029, E-mail: [junget@cha.ac.kr](mailto:junget@cha.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서론

전 세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9.3%에서 2050년 약 16%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United Nations, 2020)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이미 2000년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가 되었고, 2017년도에 14%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통계청, 2022).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가 중에 1위가 되었고 노인 인구 10만 명당 46.6인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26.9명인 전체 인구 자살률에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이다(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022).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의 대부분이 자살 당시에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의 13.5%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노인 우울증 원인의 18%가 외로움이라고 하니, 노인 자살과 외로움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0).

노년기에는 퇴직 등으로 사회생활이 축소되어 직장동료 및 친구관계가 줄어들고 배우자와 친인척의 죽음을 통해 정서적으로 상실과 위축을 경험한다. 또한 자녀 세대의 부모 부양 책임과 부모 세대의 자녀 의존 의식이 변하면서, 노인 부부나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여 소통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22). 이렇게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약화로 점차 교류가 줄고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외로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Cornwell & Waite, 2009).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정신적, 정서적 경험에 대한 주관적 감정으로, 친밀한 사회적 접촉이나 정서적 유대감이 부족해서 느끼는 불만족감이다(Victor et al., 2012). 외로움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인지하고 있는 관계와의 기대 차이가 생길 때 경험하는 주관적인 고뇌이므로(de Jong Gierveld & Kamphuis, 1985) 노인에게는 외로움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다(Heinrich & Gullone, 2006). 또한 외로움은 자존감(Peplau et al., 1982)과 삶의 만족도(Goodwin et al., 2001)를 저하시키고(Stillman et al., 2009) 자살로도 이어질 수도 있어, 노년기에 경험하는 외로움은 삶의 질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Cornwell & Waite, 2009). 또한 외로움은 수면장애(Cacioppo et al., 2002)와 조기 사망률에 영향을 주고(Holt-Lunstad et al., 2015) 우울(Horowitz et al., 1982), 불안(Wei et al., 2005) 등을 유발하며 치매,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과 같은 신체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Leigh-Hunt et al., 2017).

이처럼 노년기 외로움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동반하면서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지속되어 부적응적인 대처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고(정동희, 심은정, 2019), 자살 사고나 공격행동, 각종 중독 행위들로 발전하여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문희운, 양난미, 2019) 면역력 감소나 혈류의 이상, 자율신경 실조, 체중 증가 등과 같은 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해(Cacioppo et al., 2015) 개인의 건강에도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노년기의 외로움에 대한 개념과 조기 파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이론적 배경

### 외로움 개념과 측정도구

노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관련된 변인들과 구분하는가가 중요하다. 외로움은 국어사전에서 ‘홀로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1999; 민중 에센스 국어사전, 2006)으로 정의하고 외로움과 자주 혼용되는 고립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 매우 쓸쓸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1999)으로 정의한다. 안상순은 외로움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것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였고 고독은 ‘내가 원해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즐길 수 있고 여유롭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우리말 어감 사전, 2021). Gardner 등(1999)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모두 사회적 관계의 부족에서 시작하는데 외로움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관계의 부족 자체를 의미하는 객관적인 상태라고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외로움을 이론적 관점으로 개념화한 것을 비교해 보면, 사회 욕구 이론(social needs approach)에서는 Bowlby(1973)의 애착 이론에 근거해서 외로움은 ‘애착 대상의 상실과 부재로 인한 고통’(Heinrich & Gullone, 2006)이라고 하였고 사회심리학자 Weiss(1973)는 인간은 접촉(contact)과 다정함(tenderness)을 추구하는 사회적 동물로서(Fromm-Reichmann, 1980) 외로움은 ‘관계 결핍으로 인한 좌절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Ernst & Cacioppo, 1999).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에 따르면 외로움은 ‘대인관

계 속에서 개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과 실제 충족된 정도 사이의 인지적 불일치로 인해서 느끼는 불쾌한 경험’(Marangoni & Ickes, 1989)으로 관계에서 경험하는 결핍 자체에 초점을 두는 사회 욕구 이론과 다르게 인지적 관점에서는 관계에서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상황과의 차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초점을 두었다(Parkhurst & Hopmeyer, 1999). 실존적 관점(existential approach)으로 외로움을 설명한 Moustakas(1961)는 인간은 혼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로움이라는 정서 상태를 직면하는 것이므로 외로움은 삶의 본질적인 것이고 개인마다 어떻게 경험하는지가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Sønderby & Wagoner, 2013). 상호 영향론적 접근(interactionistic approach)에서 외로움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요인과 문화·환경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므로 외로움을 정의하는 데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Rokach et al., 2000; Sønderby & Wagoner, 2013).

외로움 개념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종합하여 볼 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여러 정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감정적 교감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으며(Berguno et al., 2004) 이는 친밀감과 유대감 등의 관계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인지할 때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불쾌(unpleasant)한 정서라고도 할 수 있다(Peplau et al., 1982; Weiss, 1973).

현대 심리학자들이 외로움을 ‘21세기 전염병’이라고 부르며 중요한 임상적 문제로 보면서(Fromm-Reichmann, 1980) 국가별로 여러 정책을 기획하여 실행하고 있다. 영국 공영방송에

서, 외로움은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하고 외로움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관리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2018년에 외로움 부처(Ministry of Loneliness)를 신설하고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물 처방이 아닌, 지역사회가 보유한 비약물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Drinkwater et al., 2019). 우리나라도 성인 10명 중 4명이 심각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지원 및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보건복지부, 2022). 이처럼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로움을 조기에 평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외로움이 고립, 관계적 결핍 등과 같은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도 형성되므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척도도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외로움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UCLA 외로움 척도(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Loneliness Scale)(Russell et al., 1978)는 20문항으로 ‘얼마나 자주 ( )을 느끼니까?’의 문장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으며 국내에서는 이미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도가 확인되었다(진은주, 황석현, 2017). 서영석 등(2020)은 UCLA 외로움 척도에 대하여 보편적인 외로움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 속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외로움이나, 타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낄 때 경험하는 외로움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외향성이나 수줍

음을 묻는 문항 등 외로움의 본질적인 측면과 거리가 있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변별적 외로움 척도(Differential Loneliness Scale)는 Schmidt와 Serfat(1983)가 외로움을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로 가정하고 낭만적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대규모 공동체 관계에서 각각 외로움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60문항을 개발하였고 이후 20문항으로 된 단축형도 개발되었다. NYU 외로움 척도(New York University Loneliness Scale)는 Rubenstein과 Shaver (1982)가 미국의 후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로움 빈도를 묻는 문항에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직접 표현하고 있고 문항마다 다양한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어 외로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de Jong Gierveld et al., 2006). 사회적·정서적 외로움 척도(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는 DiTommaso와 Spinner(1993)가 캐나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로 외로움을 사회적 외로움, 가족 외로움, 낭만적 외로움으로 구분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DiTommaso et al., 2004). SELSA는 국내에서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 외로움을 친구와의 관계로 한정시켰고 현재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경우 응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서영석 등, 2020).

이상에서 본 외로움 측정 척도들은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문항 수가 많아 응답의 성실성이 떨어져 탈락률과 결측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요인에 대한 문항만으로 이루어져 다른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은 측정하기 어렵거나, 인지적·정서적 요인만 포함하는 문항만

으로 구성되어 사회적 외로움은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de Jong Gierveld의 외로움 척도

본 연구에서 타당화하고자 하는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DJGLS)는 인지적 관점에 기반하여 외로움을 ‘친밀한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결핍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정의하고 개발된 척도다(de Jong Gierveld & Kamphuis, 1985). Weiss(1973)의 사회적 욕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관계로부터 기대하고 충족되는 욕구가 다르므로 사람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면서, 외로움을 애착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과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social loneliness)으로 구분하였다. 정서적 외로움은 부모, 배우자, 친한 친구 등 매우 친밀한 관계가 부재하거나 또는 상실되었을 때 느끼는 쓸쓸함이나 불안, 염려, 혹은 불안정한 정서이고, 사회적 외로움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또래들과의 연대가 부족하고 동료 및 지역 사회에 소속되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Weiss, 1973). DJGLS은 외로움의 핵심 요소를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실제 관계 간 격차로 인해 경험하는 박탈감(deprivation)에 두고 네덜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외로움 6문항, 사회적 외로움 5문항으로 11개 문항으로 개발하였고 2006년에는 6개 문항으로 된 단축형도 개발되었다(de Jong Gierveld & Van Tilburg, 2006). DJGLS는 유럽에서는 활용도가 높은 척도로서 (de Jong Gierveld & Kamphuis, 1985)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스라엘, 이란, 스페인, 말레이시아, 중국, 페루, 칠레 등에서 척도 타당화가 평가되었는데 국내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연구가 없어 활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서영석 등, 2020).

이처럼 외로움을 친밀한 관계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결핍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평가로 정의하고 개발되어 국외 연구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가 우리나라 노년기 외로움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을 정확하고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de Jong Gierveld의 외로움 척도(DJGLS)를 우리나라 노인에게 최적화되도록 번안하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 대상의 표적 모집단은 한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남녀로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언어적 소통이 가능하고 치매나 인지 기능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얻어 진행하였으며 설문지를 직접 읽어주고 기입하는 일대일 면접 방식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차의과학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IRB) 승인 후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IRB No. 1044308-

202303-HR-085-01). 총 40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설문 일부에서 대답을 원하지 않는 14명을 제외한 386명을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JGLS) 변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측정도구 변안 과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먼저 원척도 개발자인 de Jong Gierveld에게 척도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아 심리학을 전공한 이중 언어자가 문항 변안(forward translation)을 하고 전문가 검토(expert panel)를 위해 임상상담심리학과 교수와 심리학을 전공한 박사 1인이 문항의 표현 및 어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이를 통번역 박사가 역 변안하고 연구자와 심리학과 교수가 원문과 비교 검토한 후, 최종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 측정 도구

#####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DJGLS)

본 연구에서는 de Jong Gierveld 등이 개발한 11개 문항으로 된 외로움 척도를 변안하여 타당화하였다. DJGLS의 11개 문항은 사회적 외로움(5개 문항)과 정서적 외로움(6개 문항)의 2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적 외로움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6$ 이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로 나타났다.

##### UCLA 외로움 척도(Revised UCLA Loneliness

##### Scale, RULS)

준거 변인으로서 노년기 외로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등(1978)이 제작한 개정판 외로움 도구를 김옥수(1997)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긍정적 문항 11개, 부정적 문항 9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긍정적인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수의 분포는 20-80점이며 원척도의 Cronbach's  $\alpha=.92$ 이고 Kim(1997) 연구의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Korea version of 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K-SGDS)

준거 변인으로서 노년기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Yesavage 등(1983)이 개발한 노인 우울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를 Sheikh와 Yesavage(1986)가 15문항으로 단축하고 조맹제 등(1999)이 변안한 한국판 단축형 노인 우울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분형(예, 아니오)으로 응답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0~15점이고 5개의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Cronbach's  $\alpha=.95$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로 나타났다.

#####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준거 변인으로서 노년기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정아(1996)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RSES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Cronbach's  $\alpha=.92$ 이고 최정아(1996) 연구의 Cronbach's  $\alpha=.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척도(The Medical Outcome Study-Social Support Survey, MOSS-SSS)

준거 변인으로서 노년기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Sherbourne과 Stewart(1991)가 개발한 MOS-SSS를 임민경(2003)이 번안한 한국어판 MOS-SSS 도구를 사용하였다. MOS-SSS는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로 측정하고 있는데 구조적 지지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친척의 수를 측정하고 기능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4문항), 애정적 지지(3문항), 긍정적 사회 상호작용(4문항), 정서적/정보적 지지(8문항)를 측정한다.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점)’에서 ‘항상 있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Cronbach's  $\alpha=.97$ 이고 임민경(2002) 연구의 Cronbach's  $\alpha=.9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 으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와 AMOS version 23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통하여 K-DJGLS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고 확인된 2개의 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수집된 386명의 응답 자료를 SPSS의 무선 표본추출(random sample of cases)을 이용하여 두 개의 집단(표본 1, 표본 2)으로 나누어 표본 1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본 2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노인 우울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와 상관을 통해서 준거 타당도(criterion validity)를 확인하였다.

## 결 과

대상자 386명의 평균연령은 74.67세였고 이 중 여성이 56.5%(218명), 남성이 43.5%(168명) 이었고 기혼이 57.5%(222명), 이혼이나 별거 혹은 사별이 42.5%(164명) 이었다. 거주형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대상자가 67.4%였고 32.6%가 혼자 살고 있었다. 대상자가 자각하는 건강 상태는 나쁨이 32.9%, 보통이 37.6%, 좋음이 29.5%라고 답변하였다.

#### 문항의 기술 통계치 및 신뢰도

K-DJGLS의 전체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요인 간 상관, 전체 및 하위 척도의 신뢰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문항 수준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평균은 3.09~3.61이고

표 1. 척도별 기술 통계치 및 Cronbach's  $\alpha$ 값 (N=193)

요인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요인간 상관	신뢰도 Cronbach's $\alpha$
정서적 외로움	2	3.49	.737	.652	.90
	3	3.61	.715	.530	
	5	3.40	.751	.626	
	6	3.45	.706	.546	
	9	3.58	.688	.535	
	10	3.59	.648	.512	
사회적 외로움	1	3.24	.774	.716	.85
	4	3.18	.710	.565	
	7	3.27	.700	.661	
	8	3.09	.705	.364	
	11	3.62	.644	.228	
전체	-	3.41	.483	.411	.89

표준편차는 .644~.774의 범위를 보여 극단 값을 갖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면 정서적 외로움은 .512~.652, 사회적 외로움은 .228~.716으로 나타나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이 비교적 동질함을 알 수 있었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85였고 2개 하위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96, .850으로 나타났다.

####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M)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 방식으로는 사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법으로 요인회전을 실시하였

다. 11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KMO 값은 .865였으며 Bartlett 구형성 검정 결과는  $\chi^2=1200.807$ ,  $df=55$ ,  $p<.001$  으로 타당하여 본 자료는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값(eigenvalue)을 1.0 이상으로 하고, 스크리도표(scree plot)를 이용해 요인 수를 알아보았을 때 척도의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뉘었고, 전체 변량의 58.3%를 설명하였다. 요인 1에는 정서적 외로움에 대한 6개 문항이 포함, 요인 2에는 사회적 외로움에 대한 5개 문항이 포함되었고 11문항이 모두 높은 수준의 요인부하량을 보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을 두 가지로 설정하고 구성요인이 두 가지라고 가정한 K-DJGLS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 크기의 범위는 .467~.863이었으며 요인 별 문항

표 2. K-DJGLS의 하위 요인과 요인부하량 (N=193)

요인 및 문항		요인1	요인2
<b>요인 1: 정서적 외로움</b>			
2	나는 진정으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863	.008
3	나는 텅 빈 공허함을 경험한다	.793	.025
5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789	-.030
6	나는 친구나 지인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732	-.038
9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715	-.028
10	나는 자주 거절당한다고 느낀다	.707	-.034
<b>요인 2: 사회적 외로움</b>			
1	나는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	.044	-.900
4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있다	.045	-.829
7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015	-.790
8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	-.087	-.658
11	나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256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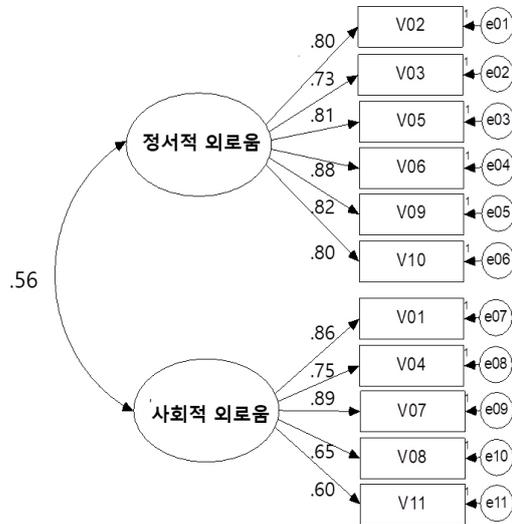
구성과 요인부하량을 표 2에 제시하였다.

K-DJGLS의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AMOS 23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카이제곱의 통계치와 자유도, 그리고 적합도 지수인 GFI(Goodness of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 Root Mean Residual)를 분석한 결과,  $\chi^2=115.568$ ,  $df=43$ ,  $p=.000$ ,  $\chi^2/df = 2.688$ , GFI=.905, CFI=.946, TLI=.930 RMSEA=.094, RMR=.032로 적합도 지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고 표 3에 제시하였다. GFI, CFI

및 TLI는 .90보다 높을 경우 적합하고 RMSEA는 .08보다 낮을 경우 적합하며 .1 이하인 경우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한다(우종필, 2012). RMR은 공분산 행렬과 모델의 추정 공분산 행렬 간 차이가 오차 행렬이 된다. 이러한 오차들을 제공한 값의 제곱근 수치로 표본 공분산 행렬과 모델 추정 공분산 행렬 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므로 0에 가까울수록 좋은 적합도로 보기 때문에 .05이하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K-DJGLS의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 간 상관은 .541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3. K-DJGLS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N=198)

구분	$\chi^2$	df	$\chi^2/df$	GFI	CFI	TLI	RMSEA	RMR
연구모형(11문항)	115.568	43	2.688	.905	.946	.930	.094	.032



(주. 문항번호는 탐색적 요인분석 번호와 일치함)  
 그림 1. K-DJGLS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N=198)

### 구성 타당도

K-DJGLS 측정 항목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들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면( $p < .05$ ), 그 측정변수들 간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Field, 2013) 본 연구에 사용된 각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보다 큰 것을 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 요인부하량보다 좀 더 정밀한 타당성 평가 방법으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을 이용하여 그 값이 .5 이상이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요인부하량과 오차분산의 값으로 산출되는 개념 신뢰도(construct composite reliability; CCR)를 이용하여 그 값이 .7 이상이면 수렴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우종필, 2012)

K-DJGLS의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의 평균분산추출은 .766과 .771, 개념신뢰도는 .941과 .953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두 구성개념간에 상관계수(.560)의 제공 값인 .314보다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의 평균분산추출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있음이 검증되었다.

### 준거 관련 타당도

K-DJGLS의 준거 변인과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UCLA 외로움 척도 및 우울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UCLA 외로움 척도와는  $r = .563(p < .001)$ , 우울 척도와는  $r = .434(p < .001)$ 로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자아존중감 척도 및 사회적 지지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와는  $r = -.522(p < .001)$ , 사회적 지지 척도와는  $r = -.603(p < .001)$ 으로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Cohen(1988)의 상관계수 크기에 대한 해석 지침에 따라 K-DJGLS는 준거 변인과의 타당도가 확인되어 <표 4>에 제시하였다.

### 논 의

외로움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며 사회 문화적인 특성과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노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은 좌절감과 상실감을 동반하면서 만성적인 외로움으로 지속될 수 있고 신체적으로 이상 증상을 유발하여 건강에도 지속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Cacioppo et al., 2015) 외로움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대처행동

표 4. K-DJGLS와 준거 척도의 상관관계

(N=386)

		K-DJGLS		
		총합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K-DJGLS	총합	1		
	정서적 외로움	.900***	1	
	사회적 외로움	.825***	.496***	1
준거 변인	UCLA	.563***	.469***	.513***
	우울	.434***	.379***	.374***
	자아존중감	-.522***	-.457***	-.448***
	사회적지지	-.603***	-.371***	-.720***

주. \*\*\* $p < .001$ .

이(House et al., 1988) 자살사고나 공격행동, 각종 중독 행위들로 발전하여 사회적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노인이 겪는 외로움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외로움을 조기 평가하고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로움은 사회적으로 외로운 상황이어도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외롭지 않은 상황이어도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외로움은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de Jong Gierveld et al., 2006).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DJGLS)는 외로움의 요소를 인지적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과 비교하거나 타인에 대한 기대와 실제 관계 간 격차로 인해 경험하는 박탈감(deprivation)에 두고 개발하여(de Jong Gierveld & Kamphuis, 1985) 외로움의 사회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평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를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안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요인분석 및 준거 변인들과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K-DJGLS)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2요인(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으로 확인되었고 요인부하량과 내적 일치도가 양호하였으며 K-DJGLS 모형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준거 관련 타당도 분석 결과 K-DJGLS은 UCLA 및 우울 척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 척도 및 사회적지지 척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준거 변인과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외로움이 우울과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은 외로움이 우울 증상을 예측하는 인자라고 한 종단 연구 결과를 지지하며 외로움은 우울증의 발병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선행 요인이거나 결과 요인 중 하나라고 한 연구(Cacioppo et al., 2006)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K-DJGLS과 부적 상관을 보인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하지 못할수록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이나 관계

적 유능감을 방해하여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Wheeler et al., 1983)를 지지하며 자아존중감이 외로움과 높은 부적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Goswick & Jones, 1981; Horowitz et al., 1982)와도 일치한다.

또한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의 배경인 된 Weiss(1973)의 사회적 욕구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그 관계로부터 기대하고 충족되는 욕구가 다르므로 사람들은 관계 유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애착 관계의 결핍으로 부모, 배우자, 친한 친구 등 매우 친밀한 관계가 부재하거나 상실되었을 때는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을 경험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의 결핍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는 또래들과의 연대가 부족하고 동료 및 지역 사회에 소속되지 못할 때는 사회적 외로움(social loneliness)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에서 평정할 수 있는 외로움의 2개 요인에 대한 문항 분석은 우리나라 노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종류와 배경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한편, 안수정 등(2023)은 UCLA 외로움 척도가 보편적인 외로움을 측정하고 있어 집단에 속하지 못해 경험하는 사회적 외로움을 측정할 수 없으며 SELSA 외로움 척도는 사회적 외로움을 친구와의 관계로 한정시키고 현재 배우자나 연인이 없는 경우 응답할 수 없는 문항이 있어 외로움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 NYU 외로움 척도는 문항마다 다양한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거나 문항 수가 많아 노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하였는데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을 보완한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를 국내 노인의 외로

움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검증한 것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노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사회적 자원이 타 지역과 차이가 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의 노인이 겪는 외로움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신체적 질환 등으로 주로 집에서만 거주하는 노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지 못해 시간적 안정성을 보지 못했으므로 추가적인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겠다. 셋째, 노년기 외로움은 이전 삶의 행태나 적응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청소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도 본 척도를 타당화하여 노년기 외로움 발생을 예측하고 관리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K-DJGLS)는 노년기의 외로움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확인되었으며 11개 문항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정점이 있다. 노년기에 사회적 활동과 교류 관계가 줄어 정서적으로 위축이 되는 자신의 정서 상태를 외로움으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K-DJGLS 외로움 척도로 평가한 개인별 외로움의 수준에 따라 조기 개입하여 노년기 우울이나 자살을 예방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K-DJGLS)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 장면과 사회복지 현장에서 노인 외로움을 평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1999). 표준국어 대사전
- 김옥수 (1997). 한국어로 번역된 UCLA 외로움 사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조사. *대한간호학회지*, 27(4), 871-879.
- 문희운, 양난미 (2019). 성인애착, 자기결정적 고독동기, 외로움의 수준에 따른 집단분류와 우울, 스트레스 대처방식, 삶의 만족도의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29-154.
- 민중 에센스 (2006). 국어사전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노인실태 조사.
-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중증희망재단 (2022). 2022 자살예방백서.
- 서영석 (2020). 한국 성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에 관한 개념도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수정, 고세인, 김수림, 서영석 (2023). 한국인들이 경험하는 외로움(loneliness)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131-176.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임민경 (2002). 일부 도시 저소득층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동희, 심은정 (2019). 노인 우울 증상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의 네트워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2), 549-570.
- 조맹제, 배재남, 서국희, 함봉진, 김장규, 이동우, 강민희 (1999). DSM-III-R 주요우울증에 대한 한국어판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8(1), 48-63.
- 진은주, 황석현 (2017).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22). 장래인구추계
- Berguno, G., Leroux, P., McAinsh, K., & Shaikh, S. (2004). Children's experience of loneliness at school and its relation to bullying and the quality of teacher interventions. *The Qualitative Report*, 9(3), 483-49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New York: Basic Books.
- Cacioppo, J. T., Hawkley, L. C., Berntson, G. G., Ernst, J. M., Gibbs, A. C., Stickgold, R., & Hobson, J. A. (2002). Do lonely days invade the nights? Potential social modulation of sleep efficiency. *Psychological Science*, 13(4), 384-387.
- Cacioppo, J. T., Hughes, M. E., Waite, L. J., Hawkley, L. C., & Thisted, R. A. (2006). Loneliness as a specific risk factor for depressive symptoms: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Psychology and Aging*, 21(1), 140-151.

- Cacioppo, S., Balogh, S., & Cacioppo, J. T. (2015). Implicit attention to negative social, in contrast to nonsocial, words in the Stroop task differs between individuals high and low in loneliness: Evidence from event-related brain microstates. *Cortex*, 70, 213-233.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Cornwell, E. Y., & Waite, L. J. (2009). Measuring social isolation among older adults using multiple indicators from the NSHAP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4B(SI), pp.138-146.
- de Jong Gierveld, J., & Kamphuis, F. (1985). The development of a Rasch-type loneliness scale.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9(1), 289-299.
- de Jong Gierveld, J., Van Tilburg, T., & Dykstra, P. A. (2006).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 DiTommaso, E., & Spinner, B. (1993). The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SELS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27-134.
- DiTommaso, E., Brannen, C., & Best, L. A. (2004). Measurement and validity characteristics of the short version of the social and emotional loneliness scale for adult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1), 99-119.
- Drinkwater, C., Wildman, J., & Moffatt, S. (2019). Social prescribing. *BMJ*, 364.
- Ernst, J. M., & Cacioppo, J. L. (1999). Lonely hear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onelines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8(1), 1-22.
- Field, A. (2013).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IBM SPSS statistics* (4th ed.). CA: Sage.
- Fromm-Reichmann, F. (1980). Loneliness. In J. Hartog, J. R. Audy & Y. A. Cohen (Eds.), *The anatomy of lonelines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ardner, I., Brooke, E., Ozanne, E., & Kendig, H. (1999). *Improving social networks, a research report: improving health and social isolation in the Australian veteran community*. Lincoln Gerontology Centre, La Trobe University, Melbourne.
- Goodwin, R., Cook, O., & Yung, Y. (2001).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ree cultural groups. *Personal Relationships*, 8(2), 225-230.
- Goswick, R. A., & Jones, W. H. (1981). Loneliness, self-concept, and adjustment. *The Journal of Psychology*, 107(2), 237-240.
- Heinrich, L. M., & Gullone, E. (2006).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loneliness: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6(6), 695-718.
- Holt-Lunstad, J., Smith, T. B., Baker, M., Harris, T., & Stephenson, D. (2015).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s risk factors for mortality: A meta-analytic review.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10(2), 227-237.
- Horowitz, L. M., French, R. D. S., & Anderson, C. A. (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 House, J. S., Landis, K. R., & Umberson, D. (1988). *Social relationships and health*. *Science*, 241(4865), 540-545.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Leigh-Hunt, N., Bagguley, D., Bash, K., Turner, V., Turnbull, S., Valtorta, N., & Caan, W. (2017). An overview of systematic reviews on the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Public Health*, 152, 157-171.
- Marangoni, C., & Ickes, W. (1989). Loneliness: A theoretical review with 39 implications for measurement.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6(1), 93-128.
- Moustakas, C. E. (1961). *Lonelines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OECD Better Life Index (2019). Retrieved from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
- Parkhurst, J. T., & Hopmeyer, A. (1999). Developmental change in the sources of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onstructing a theoretical model. In K. J. Rotenberg & S. Hymel (Eds.), *Lonelines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plau, L. A., Miceli, M., & Morasch, B. (1982). Loneliness and self-evaluation. In L.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135-151). New York.
- Rokach, A., Lackovic-Grgin, K., Penezic, Z., & Soric, I. (2000). The effects of culture on the causes of loneliness. *Psychology*, 37(3-4), 6-2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enstein, C.,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06-223). New York: Wiley-Interscience.
- Russell, D., Peplau, L. A., & Ferguson, M. L. (1978). Developing a measure of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3), 290-294.
- Schmidt, N., & Sermat, V. (1983). Measuring loneliness in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5), 1038-1047.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Clinical Gerontologist*, 5(12), 165-173.
- Sherbourne, C. D., & Stewart, A. L. (1991). The MOS social support survey. *Social Science & Medicine*, 32(6), 705-714.
- Sønderby, L. C., & Wagoner, B. (2013). Loneliness: an integrative approach. *Journal of Integrated Social Sciences*, 3(1), 1-29.
- Stillman, T. F., Baumeister, R. F., Lambert, N. M., Crescioni, A. W., DeWall, C. N., & Fincham, F. D. (2009). Alone and without purpose: Life loses meaning following social exclu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686-694.
- United Nations. (2020).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0.
- Victor, C. R., & Yang, K. (2012). The prevalence of loneliness among adults: A case study of the United Kingdom. *The Journal of Psychology*, 146(1-2), 85-104.

- Wei, M., Russell, D. W.,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ocial self-efficacy, self-disclosure, loneliness, and subsequent depression for freshman college studen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02-614.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US: The MIT Press.
- Wheeler, L., Reis, H., & Nezlek, J. B. (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4), 943-95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Process of translation and adaptation of instruments*. Retrieved January 17, 2019, from [https://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https://www.who.int/substance_abuse/research_tools/translation/en/)
- Yesavage, J. A., Brink, T. L., Rose, T. I., Lum, O., Huang, V., Adey, M., & Leirer, V. O. (198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reening scale: A preliminary report. *Journal of Psychiatric Review, 17*(1), 37-49.

원 고 접 수 일 : 2023. 10. 18

수정원고접수일 : 2024. 01. 08

게 재 결 정 일 : 2024. 01. 29

##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for the Elderly

Kyoungmi Joo

Junghae Youn

CHA University

Doctoral candidate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K=DJGLS) among older adults aged 65 and older.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data collected from 386 participants via convenience sampling, the K-DJGLS was found to consist of two factors, social loneliness and emotional lonelines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sca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adequate model fit. Correlation analysis with related scale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scale's validity. The K-DJGLS exhibited a high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UCLA Loneliness Scale and the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Self-Esteem Scale and the Social Support Scale. The scale demonstrate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89.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K-DJGLS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Key words* : Loneliness, Korean 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 Elderly, Validation

[부 록]

한국판 de Jong Gierveld 외로움 척도 (11문항)

문항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거의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늘 곁에 있다					
2. 나는 진정으로 친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3. 나는 텅 빈 공허함을 경험한다					
4.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있다					
5.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6. 나는 친구나 지인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7. 나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8. 나는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이 충분히 많다					
9.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10. 나는 자주 거절당한다고 느낀다					
11. 나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